

아르헨티나와 MERCOSUR

선우 건
중남미정보센터

1. 서언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진행된 남미의 거시경제적 변화과정과 더불어 1995년의 MERCOSUR 출범은 이 지역의 장기적인 경제구조 변화를 유도해 내는 의미있는 경제사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1995년 1월 1일 MERCOSUR의 출범은 한편으로는 MERCOSUR 회원국들의 경제정책 변화에 의한 귀결로서 이해될 수 있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개혁정책 기조를 강화시키거나 또는 새로운 경제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는 아르헨티나와 관련한 MERCOSUR의 복합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아르헨티나가 MERCOSUR를 추진하게 된 배경, 즉 기본적인 정책목표를 검토해 보고 MERCOSUR가 아르헨티나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살펴봄에 이러한 점에 기반한 아르헨티나의 입장과 전략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2. 아르헨티나 경제개혁의 방향과 MERCOSUR

2.1. 경제개혁 추진의 배경과 방향

아르헨티나의 경제개혁은 흔히 Plan Cavallo로 이야기되는 1991년 2월과 4월의 구조조정정책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1940년대 이후 지속적인 하락을 경험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기에는 가장 심각한 경제불안정 상

태에 빠지게 되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1989년에 이르기까지 국내저축, 투자 및 노동생산성은 급속히 하락했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은 공공부문의 재정적자 확대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 1970년대 후반 공공부문 적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를 넘지 않는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는 15%를 상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1983년 출범한 알폰신 정부는 쇼크요법을 통한 경제회복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1989년 7월 출범한 메넬 정부 초기의 두 차례에 걸친 안정화 정책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정부부문의 재정적자에서 시작된 아르헨티나 경제의 장기적 불안정은 화폐에 대한 불신으로 심화되면서 경제활동의 왜곡현상을 야기시키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까발로 장관의 선택이 무제한 태환정책으로 나타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것이었다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아르헨티나 경제개혁의 추진은 유일한 선택 또는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정부 부문의 팽창에 다른 과도한 재정적자의 해소가 경제회복의 전제조건이 된 상황에서, 이에 얽힌 제반 요소의 동시적 해결은 화폐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기반으로 국영기업의 매각을 통한 단기적 재정수입 확대, 재정지출의 축소와 세수확대를 통한 장기적 재정균형 유지, 국내 투자 여건 조성을 목표로 한 규제완화, 물가 안정과 시장경쟁을 강화시키기 위한 무역개방, 국내자본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 등 총체적인 개혁을 목표로 한 정책수단들이 구체화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이 의도하는 바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경제이론의 목표, 즉 고용의 확대와 소득의 향상이라는 핵심목표를 지향하고 있되 그 수단으로서 안정을 기반으로 한 민간부문의 투자확대를 유도해 내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2. 아르헨티나 경제개혁 현황

아르헨티나의 경제 개혁이 진행된 4년간의 성과는 최근의 외환 위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순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의 한 자리수화와 인상적인 경제성장률의 유지는 일견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게끔 해주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경제적 성과가 대단히 위태로운 미래를 잉태하고 있고 또 최소한 미시적으로라도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음을 보게 된다.

민간부문의 투자확대 — 특히 고용창출과 직결되어 있는 제조업 부문의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민간기업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규제완화 정책이나 자본재나 중간재의 확보에 경쟁력을 부여해 주는 무역개방, 금융비용의 완화와 아울러 국제채권단과의 협상 추진의 필요성에 의한 금융개방 등은 그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 상존에도 불구하고¹⁾ 아르헨티나 정부에 있어서는 핵심 목표의 추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개혁 추진을 구태여 선후를 나누어 생각해 본다면 ① 화폐 신뢰성 회복, ② 공공부문의 균형재정 회복을 통한 거시경제 안정, ③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 ④ 고용 확대 및 유효수요 증가, ⑤ 내수공급 및 수출의 확대, ⑥ 확대재생산 구조의 정착과 지속적 고용증대라는 핵심과정으로 분리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①과 ②의 과정은 대달러 고정환율제도의 채택과 외채협상 그리고 국영기업의 매각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²⁾ 비교적 단기간에 그 성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투자활동과 이에 따른 고용확대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1987년 이후 1990년까지 국내총투자의 지속적인 감소추세가 진행된 이후 1991년과 1992년에는 연평균 28%의 국내총투자 증가율을 실현하였고 1993년과 1994년에도 20% 내외의 강한 상승세를 지속했다.³⁾ 또한 제조업 부문의 생산에 있어서도 1984년을 기준연도로 한 생산지수가 1994년에 이르러 평균 20% 정도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제조업 생산이 회복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⁴⁾ 그러나 이러한 투자증가는 산업용 기계류의 수입급증을 수반하면서⁵⁾ 단기적

1) 이와 관련, Adolfo Canitrot와 Silvia Junco의 산업구조조정 선행의 강조는 의미있는 주장으로 여겨진다. Canitrot, Adolfo and Silvia Junco "Macroeconomic Conditions and Trade Liberalization: The case of Argentina," in Adolfo Canitrot and Silvia Junco(eds.) *Macroeconomic Conditions and Trade Liberalization*(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1993), pp.31-80; 불충분한 여건하에서의 금융개방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해서는 Sidney Weintraub "The Mexican Economy: Life after Devaluation," *Current History* vol.94, no.590(March 1995) 참조.

2) 아르헨티나의 민영화의 과정과 영향에 대해서는 Alberto Petrecolla, et als. "Privatization in Argentina," *The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vol.33(Special Issue 1993), pp.67-93. 참조.

3)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in Latin America 1993 Report*(Washington D.C.: IDB, Oct. 1993) 통계 참조.

4) *EIU Country Report*, 1995 1Q.

으로 무역수지를 크게 악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현상은 아르헨티나 경제 개혁기조의 지주적인 무제한 태환정책의 실효성 즉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고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종의 부메랑 효과를 낳은 결과라 할 수 있다.

고용확대 부문에 있어서는 개혁 정책의 실시 이후 실업률이 오히려 더욱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투자 회복이 급속히 진행되었던 1992년~1994년 기간을 보면 실업률은 1992년 10월 6.9%, 1993년 5월 9.9%, 1994년 5월 10.8%, 1994년 10월에는 사상 최고치인 12.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⁵⁾ 투자 증가가 고용확대를 수반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투자 증가가 고용 확대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투자활동이 기존 국영기업의 민영화 이행에 따른 합리화 정책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994년 12월 멕시코 페소화 위기의 영향을 받은 아르헨티나의 외환위기는 아르헨티나의 경제개혁이 정부 통제력의 취약성이 야기될 수 있는 부문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1995년 4월 14일 5개 은행의 30일간 업무중단 조치로 귀결된 금융 신뢰도의 약화⁶⁾ 및 예금지급보장 한도액의 상향조정⁸⁾에 따른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은 소위 costo argentino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아르헨티나의 개혁정책은 투자-고용, 생산-수출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으며 비교적 용이했다고 할 수 있는 안정화의 성취를 성장과 고용의 확대로 연결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개혁기반의 공고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3. 개혁정책과 MERCOSUR

1986년 알폰신 정부와 사르네이 정부 사이에 추진되었던 ABEIP(Argentine-Brazilian Economic Integration Program)는 이후 MERCOSUR의 출범에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양국 경제가 악화일로에 있던 상황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하였다. ABEIP는 문민정부 사이의 협력을 통한 정치

5) 뒤의 표2 참조.

6) *The Economist*, various issues; *AP News*.

7) *Reuter Financial News*, 1995.4.14

8) *Dow Jones News*, 1995.4.14

력의 제고라는 목표와 아울러 양국 사이의 교역확대를 통한 경제회복의 목적을 내포하고 있었으나 생산의 부진, 결제능력의 불비, 환율 불안정 등은 실효성있는 교역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애요인이 되었다.

ABIEP는 MERCOSUR로의 확대재편과 아울러 역내국의 경제안정화 경향에 힘입어 그 진행과정에서 뚜렷한 효과를 나타냈고 이에 의해 참여국의 입장도 보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아르헨티나의 입장에서 볼 때 MERCOSUR의 추진은 점진적인 회복을 보이고 있는 제조업에 대해 역내교역의 확대를 통한 시장 확대 기회를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회복과정의 초기단계에서 브라질 제조업의 아르헨티나 시장 침투에 의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MERCOSUR의 추진에 내포된 부정적 가능성은 아르헨티나의 제조업자들로 하여금 환율 부담의 제거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요구하는 동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제기될 때마다 가발로 장관은 현단계에서 환율 정책의 변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여 왔다.

아르헨티나에 있어서 MERCOSUR의 추진, 그리고 나아가 NAFTA 가입문제에 대한 명백한 지지표명 등은 메넴 정부의 개혁 기초를 공고화하는 의미와 아울러 핵심정책 목표를 명백히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ERCOSUR는 개혁 정책에 내포된 무역개방을 조약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MERCOSUR라는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한 투자확대 목표를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실업의 확대, costo argentino의 증가에 따라 개방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내적으로 약화되는 것을 외부로부터 보전하고 이를 통해 정통성을 확보하는 의미가 부분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을 의미한다. 또한 국내 산업활동의 촉진과 경쟁력 강화의 문제를 외국자본의 유입을 통해 단기적으로 해결하려는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이 산업정책의 핵심적 요소로 내포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MERCOSUR는 메넴 정부 개혁정책의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추진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3. MERCOSUR의 기대효과

개혁 정책의 한 방안으로서 MERCOSUR를 추진하는 것과 MERCOSUR 추진이

과연 원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시키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 할 수 있다. MERCOSUR의 형성은 그로써 자생적인 동력을 갖게 되며 그 동력의 원천은 무엇보다도 시장경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MERCOSUR는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역내국 사이의 교역 증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핵심 교역국인 브라질에 대한 수출은 1988년 6억달러 수준에서 1992년에는 16억달러 이상을 그리고 1993년과 1994년에는 각각 28억달러, 31억달러를 상회하여 1988년~1994년 기간 중 400% 이상의 대브라질 수출 신장율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대브라질 수출 신장 추세는 1995년 MERCOSUR의 정식 출범에 의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1995년의 대브라질 수출액은 4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1 참조)

1988년 9억6천만달러를 기록했던 대브라질 수입의 경우는 1992년에 브라질 화폐의 평가절하 추세와 아르헨티나 화폐의 상대적 고평가에 의해 33억달러를 넘어섰으나 1994년 브라질의 real plan의 추진에 의해 확대 추세가 완화되어 37억달러 수준을 기록했다.⁹⁾ 브라질 경제의 안정화와 real화의 강세 기조에 의해 1995년에는 대브라질 수입이 하향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2 참조)

이처럼 그동안 지속된 MERCOSUR 체제하에서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제거과정은 아르헨티나의 역내 교역 비중을 급속도 증가시키는 영향을 가져다 주었다. 특히 대브라질 교역은 수출의 경우 1988년 총수출 대비 점유율 12% 수준이 1993년에는 21%로 급증하였고 수입의 경우는 동기간 중 총수입 대비 점유율 17%에서 21%로 증가하였다.

MERCOSUR 추진의 또다른 기대효과의 하나인 투자확대의 경우, 국내총투자는 1988년~1990년 기간중 연평균 -17%의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1990년~1992년 기간 중에는 연평균 28%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어서 부분적으로 MERCOSUR 추진의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국내 자본부족을 보전할 것으로 기대되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1989년까지 거의 정체되어 있던 상태에서 1989년~1993년 기간중 500% 이상이 증가하는 확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증권 및 채권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역시 1992년~1993년 기간 중 급속히 증가해서 1993년말 현재 117억달러의 자본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¹⁰⁾ 이러한 간접투자 규모는 1993년말 기준 62억4천만달러 규모를 기록한 외국인 직접투

9) EIU Country Report, 1995. 1Q.

10) Business Latin America, 1994.8.15

자의 규모보다 큰 것이었다.

외국인 간접투자 비중의 증가는 외환의 유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단기적인 자금 유출에 의한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앞서 언급한 바, 1994년 12월부터 시작된 멕시코 페소화 위기에 의해 현재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외환위기가 파생되기도 하였다. 아르헨티나에서의 외국인 간접투자 자본의 유출은 한 때 60억달러에 이르렀으며 아르헨티나 경제개혁의 핵심요체인 대달러 무제한 태환정책의 실효성 상실의 위기를 야기시켰으나 1995년 2월 27일 긴축정책 발표¹¹⁾ 이후 3월 들어서는 외환보유고의 증가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4월 11일 현재 멕시코 페소화 위기 이전의 170억 달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46억달러 수준으로 3월말 대비 20억달러 정도의 외환 보유고 증가를 시현하고 있다. (표 3 참조) 최근의 외환 위기는 비록 MERCOSUR 추진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은 아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개방기조하에서의 정부 통제력 약화 가능성이라는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자국내의 자본의 흐름, 생산활동 및 소비활동과 고용의 변동과 아울러 역 내국가들에서의 제반 경제적 변수의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음으로써, MERCOSUR를 통해 얻고자 하는 아르헨티나의 목표 달성은 의외로 순조롭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4. 아르헨티나의 입장과 전략

아르헨티나가 MERCOSUR의 추진내용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관심사의 첫번째는 긍정적인 무역수지의 유지며 두번째의 것은 국내 산업경쟁력의 확보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아르헨티나는 MERCOSUR의 협상과정에서 브라질의 거시경제 정책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특히 브라질 화폐의 상대가치 하락이 아르헨티나의 대 브라질 무역적자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개혁이 무

11) 2.27 조치는 정부의 재정수지 균형회복을 통한 투자신뢰도 회복을 목표로 하였으며 고임 공무원의 임금 삭감, 정부기구 통폐합 등을 통한 10억달러의 세출 축소, 징세 강화 등을 통한 23억달러의 세입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Facts on File*, 1995.3.9

제한 태환정책을 근간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환율정책을 사실상 유보하고 있는 것이며 민간 경제부문에서의 지속적 평가절하 압력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볼 때 현행 환율정책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역내 여타 회원국에서의 환율정책이 아르헨티나의 주요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관심의 초점은 무역수지와 연계된 부분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MERCOSUR 협정에서 아르헨티나의 곡물 우선 구매제도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아르헨티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아르헨티나는 MERCOSUR의 추진과정에서 거시적인 무역수지 문제와 병행하여 MERCOSUR가 야기시킬 수 있는 산업 부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였다. 이러한 우려는 철강 부문의 관세 협상에서 잘 나타났다.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철강산업의 무관세화가 단기간에 아르헨티나의 동부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킬 것을 우려하였고 철강부문을 예외 품목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관세 인하기간 중 실제로 철강 및 관련제품의 대브라질 수입은 30~40%의 높은 수입신장율을 나타냈다.

특히 1992년 10월 국영 철강업체인 SOMISA(Sociedad Mixta Siderurgica Argentina)의 민영화에 브라질 업체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아르헨티나 철강업체들이 나타냈던 우려는 철강부문의 제로 관세화가 미칠 수 있는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SOMISA의 철강 수출은 1990년 120만톤, 1991년 81만5천톤, 1992년 25만톤으로 지속적인 감소현상이 나타났고 민영화 이후의 사업계획에서도 1993~1997년 기간중 연평균 10만~20만톤의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강의 경우 아르헨티나의 내수는 1990년 160만톤에서 1992년 290만톤으로 80% 정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조강 수입은 동기간 중 55만6천톤에서 130만톤으로 130% 이상의 급신장을 시현하였다.¹²⁾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투자의 증가에 따른 철강 수요의 확대분이 대부분 수입 철강에 의해 점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MERCOSUR의 추진이 경쟁력이 약한 철강 부문의 시장확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아르헨티나는 문제의 최대 당사자인 브라질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과 그 제품에 대한 역내 관세 제로화 및 역외 공동관세 설정을 유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아르헨티나가 얻어낸 MERCOSUR 역내

12) *American Metal Market*. 1993.3.15

교역에 대한 무관세 예외적용 221개 품목 중 철강 관련 103개 품목이 포함되게 되었다. (표 4, 표 5 참조)

이러한 결과가 협상과정에서 얻어낸 최선의 성과라는 점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 예외 품목 적용기간이 역내교역의 경우 1998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4년 기간에 아르헨티나의 철강산업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이 대부분의 철강제품에 있어서 역내교역 제로관세화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경쟁력 확보에 의한 아르헨티나산 철강제품의 공급 확대 가능성은 있으나 중장기적인 경쟁력의 확보는 일시적인 관세 유지로서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반 문제와 관련하여 아르헨티나의 현입장은 칠레의 신자유주의 정책 수행과정과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의 이해를 통해 보다 시사받을 점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1973년 이후 안정화 정책의 추진을 통해 인플레이션 억제와 경제성장에 회복했던 칠레는 1979년 평균 10%의 관세율을 유지하는 대폭적인 무역자유화, 외환의 유입을 억제하는 것이 기조로 되어 있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개방화로의 전환 등이 이루어지면서 대규모 무역적자와 단기적인 외환 유출에 의한 경제적 타격을 경험한 바 있으며 결국 1982년과 1983년의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다. 경제 위기 이후 칠레의 경제는 장기 회복국면을 맞이하였으나 이것은 개방의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원적인 메카니즘, 즉 전략 수출품목의 다변화와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한 외환 확보의 자율적 능력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³⁾ 칠레의 사례를 고려한다면 아르헨티나의 장기적인 입장은 최소한 역내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점과 관련하여 아르헨티나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 주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MERCOSUR 협상은 아르헨티나의 의사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안의 단기적인 문제는 브라질에 대해 현저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이점과 관련하여 아르헨티나는 취약한 국내제조업 기반과 투자기반을 보완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최대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NAFTA 가입의 촉진 및 향후 MERCOSUR-EC 사이의 자유무역 협상에서의 적극적 정책추진이 예상된다.

13) 이에 관해서는 선우 건, "칠레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위기와 그 대응양상에 관한 소고," (한국외대 중남미 연구소, 『중남미 문제연구』, 근간예정) 참조.

5. 맺음말

MERCOSUR의 추진은 아르헨티나 경제개혁 정책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경제의 재도약은 MERCOSUR의 안정적 기능 그리고 나아가 MERCOSUR의 외연적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단기적 또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MERCOSUR가 아르헨티나에 미칠 영향은 주로 무역부문에서 나타날 것이다. 현행 MERCOSUR 협정하에서 아르헨티나는 기존의 곡물중심 수출구조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르헨티나가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 확보 → 수출촉진 및 확대재생산 →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과정은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은 외국인 투자제도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흔히 costo argentino로 불리는 사회비용의 문제, 외환 불안정 재연에 의한 거시경제정책의 수정 가능성, 1995년 5월에 이루어질 선거결과 여하에 따른 정치사회적 변화 가능성, 역내 국가 사이의 거시경제정책 협조 등 제반 여건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반 여건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제조업 부문 투자의 지연이 2000년대 이후 아르헨티나의 제조업 공동화를 촉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장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것은 결국 아르헨티나의 성장이 과거 19세기의 1차산품 중심의 수출경제형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국제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른 취약성에 스스로 노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좁게는 MERCOSUR권역에서 넓게는 FTAA권역에서 저부가가치 상품의 제조국으로 전락하는 주변화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MERCOSUR가 개혁정책의 긍정적인 가속장치가 되기 위해서는 아르헨티나로서는 단기적으로는 MERCOSUR 역내교역 무관세 예외 적용기간인 1998년 말까지 그리고 나아가 역외공동관세 예외 적용기간인 2000년 말까지 제조업 부문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표 1. 아르헨티나의 대브라질 수출추이 (단위 \$1,000)

연도 \ 품목	1988	1992	1993
Meat & products	4,368	18,432	26,772
Cereals & products	113,376	535,956	731,784
Fruit, vegetables & products	94,992	158,676	182,616
Sugar & products	240	6,468	3,288
Animal feeding stuffs	48	84	1,176
Oilseeds	13,608	49,008	1,836
Wool, raw	648	1,956	708
Mineral fuels & lubricants	372	121,440	497,532
Animal & vegetable oil & fats	4,104	33,852	57,420
Chemicals	37,428	146,316	152,580
Leather & manufactures	112,536	80,124	92,568
Iron & steel	756	12,672	13,296
Non-ferrous metals	372	3,756	6,504
Machinery & transport equipment	111,552	326,424	719,976
Total incl others	607,944	1,671,348	2,814,504

SOURCE: EIU Country Report 1995 1Q: 1992 4Q

표 2. 아르헨티나의 대브라질 수입 추이 (단위: \$1,000)

연도 \ 품목	1988	1992	1993
Food	66,948	270,156	283,536
of which:			
fruit, vgtbls & prdcts	14,136	55,284	53,232
coffee, cocoa, tea and spices	46,608	71,580	81,540
Rubber, crude	2,952	2,832	3,660
Mineral fuels & lubricants	51,048	25,356	95,604
Chemicals	219,492	333,852	401,736
Paper & mfgs	17,304	142,848	175,896
Textile yarn, clothes & mfgs	6,060	107,652	121,488
Non-metalic mineral mfgs	11,268	44,628	54,060
Iron & steel	186,408	292,128	195,072
Other metals & mfgs	37,716	140,208	167,136
Machinery, incl electric	147,504	602,592	739,356
Road vehicles	57,456	889,908	830,016
Ships	12	396	240
Scientific instruments, etc	10,896	38,340	44,568
Total incl others	966,240	3,338,796	3,568,452

SOURCE: EIU Country Report 1995 1Q: 1992 4Q

표 3. 2.27 긴축정책 발표 이후의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백만달러)

DATE	A	B	C	D	E	F
23/03/95	12,707	1,364	14,071	10,463	1,985	12,448
24/03/95	12,632	1,224	13,856	10,361	2,039	12,400
27/03/95	12,623	1,262	13,885	10,376	1,976	12,352
28/03/95	12,457	1,172	13,629	10,320	1,960	12,280
29/03/95	12,424	1,213	13,637	10,361	1,895	12,256
30/03/95	12,382	1,289	13,671	10,585	1,672	12,257
31/03/95	12,496	1,508	14,004	10,851	1,532	12,383
03/04/95	12,538	1,457	13,995	10,913	1,508	12,421
04/04/95	12,715	1,393	14,108	10,994	1,579	12,573
05/04/95	12,778	1,423	14,201	11,099	1,570	12,669
06/04/95	12,802	1,307	14,109	11,235	1,460	12,695
07/04/95	13,307	1,163	14,470	11,322	1,664	12,986
10/04/95	13,418	948	14,366	11,351	1,937	13,288
11/04/95	14,599*	914	15,513	11,337	1,907	13,244

* Of the \$14,599 in international reserves, \$2,329(15.95 pct) are in securities.

A = international reserves (gold, currency, securities)

B = reserve ratio in dollars and others

C = international reserves in the financial system

D = monetary base

E = reserves on demand deposits in dollars

F = currency liabilities

SOURCE: Reuter 95. 4. 17

표 4. 무관세 적용 및 역외공동관세(CETs) 적용 예외품목 개요

	CETs 적용예외	만료일시	역내제로관세유보	만료일시
아르헨티나	철강, 화학, 펄프 및 종이, 신발, 가전제품 등 232개	2001.1.1	종이, 타이어, 냉장고, 철강 등 221개	1999.1.1
브라질	화학, 유화, 고무, 직물, 목재, 종이, 농산물 등 175개	2001.1.1	포도주 등 29개	1999.1.1
파라과이	농산물, 화학, 직물, 철강, 전자 등 399개	2006.1.1	유제품, 담배, 시멘트 등 272개	2000.1.1
우루과이	유제품, 철강, 화학, 직물, 타이어 등 212개	2001.1.1	밀가루, 과일, 유제품 등 950개	2000.1.1

SOURCE: Business Latin America 1995.1.30

표 5. 철강 및 관련 제품의 1995년 MERCOSURCETs 및 현행 브라질관세

Ferrous	Tariff	Year	Brazil tariff	Year
Mineralsores	2	1995	0	1994
Pigiron	6	1995	5	1994
Billets	8	1995	10	1994
Ferromanganese	6	1995	5	1994
Ferrosilicon	6	1995	5	1994
Ferrochromium	6	1995	5	1994
Ferronickel	6	1995	5	1994
Remeltingscrap				
iron/steelingot	2	1995	0	1994
iron/non-alloyingot	2	1995	0	1994
Semifinishediron/steel(flat)	6	1995	5	1994
Semifinishediron/steel(long)	8	1995	10	1994
Steelplate,sheet,strip	12	1995	10	1994
Tinplate	12	1995	10	1994
Tem	12	1995	10	1994
Electrogalvanized				
high-strengthsheet	14	1995	20	1994
Othergalvanizedsheet	12	1995	10	1994
Steelbarsandrods	12	1995	10	1994
Steelwire	12	1995	10	1994
Stainlesingot	10	1995	10	1994
Semifinishedstainless	10	1995	10	1994
Flat-rolledstainless	14	1995	20	1994
Stainlessbar,rod,wire	14	1995	20	1994
Steelrail	12	1995	10	1994
Steelpipeandtube	14	1995	10	1994

SOURCE: American Metal Market 1994. 9. 2

참고문헌

- Acuña, Carlos H. and William C. Smith, "The Political Economy of Structural Adjustment: The Logic of Support and Opposition to Neoliberal Reform," in William C. Smith et als (eds.) *Latin American Political Economy in the Age of Neoliberal Reform*(New Brunswick: North-South Center, Miami Univ., 1994), pp.17-66.
- Canitrot, Adolfo and Silvia Junco (eds.) *Macroeconomic Conditions and Trade Liberalization*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1993)
- Ferrer, Aldo, "Economic development in Argentina: An historical perspective,"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vol.44 (Nov. 1992), pp.463-472.
- Naim, Moises, "Latin America: Post-adjustment Blues," *Foreign Policy* issue 92 (Fall 1993)
- Pastor, Manuel and Carol Wise, "The Origins and sustainability of Mexico's free trade polic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8 no.3(1993), pp.459-489.
- Petrecolla, Alberto et als, "Privitization in Argentina,"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vol.33(1993), pp.67-93.

<정간물>

- American Metal Market*, various issues.
- Business Latin America*, various issues.
- EIU Country Report Argentina*, various issues.
- The Economist*. various issues.